지역 소식통

김제 벽골제서 '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25일 벽골제에서 '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인구활력을 일으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명인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김장김치 체험, 문화행사, 간식부스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됐고, 사전 신청을 마친 재경김제향우회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삼삼오오 벽골제에 모여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시는 김장배추 등 먹거리 재료를 지역 농산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썼으며, 안심 먹거리와 색다른 프로그램 제공으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였다.

한편 김제시는 작년 12월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올해 '김제 노을 피크닉'과 '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 등 김제만의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해 높은 호응도와 지역활력을 끌어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내년에도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직원 400여명 대상 공무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해 왔지만 올 해는 강사를 통한 양방향 소통 교육 형식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조민정 전문강사를 초빙해 오전, 오후 2회 대면교육을 진행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지정된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조민정 강사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생각을 더 하면 서로에게 다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 있는 '다다르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양봉산업육성 적극 지원

총 사업비 5억 2133만원 가공 기반시설 등 6개 사업

김제시는 식물의 화분매개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식물의 화분매개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집단 실종과 병충해로 관내 양봉농가의 봉군 약 50% 이상 소실되어 벌꿀 생산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꿀벌 사료가격 상승과 밀원부족 등으로 양봉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3억4,863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품질 꿀 생산 및 채취를 위한 자재와 가공 기반시설 조성 등 6개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양봉기자재 및 생산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7개소 설치를 비롯해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소초광 2만 6,830매 및 벌꿀 채밀 시 노동력 감소를 위한 전동 벌꿀 채밀카 8대, 화분과 벌통, 화분채취기 등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기자재도 56농가에 지원하여 어려운 양봉농가의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등 양봉산업 기반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또한 월동기에 앞서 꿀벌 약군화 방지와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꿀벌 사료용 유채화분과 설탕을 추가로 지원한다.

10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결과를 토대로 김제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양봉농가 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모두 완료한 59 농가를 선정하여 유채화분 7,567kg, 설탕 7만3,035kg 등 사업비 1억7,270만원으로 11월 말까지 양봉농가에게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꿀벌의 주 영양 공급원인 유채화분, 설탕 등을 활용한 꿀생산량 제고를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이상기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현재 96농가로 이중 토종꿀벌 사육 농가 2농가, 혼합 양봉 사육 4농가를 제외하면 서양종 사육 농가가 90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제9회 2023 올해의 SNS 대상'에서 카카오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주군 제9회 올해의 SNS 대상 수상

카카오채널·블로그·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

완주군이 '제9회 2023 올해의 SNS 대상'에서 카카오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제9회 2023 올해의 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관으로 기업과 공기업, 중앙부처, 기초지자체 등으로 구분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메타버스, 트위터, 틱톡 등 SNS 채널별 개별 심사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도내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전국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카카오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카카오채널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실시간 게시해 채널을 성장시킨 후 정책, 문화 소식 등이 담긴 포스트와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주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해왔다.

블로그의 경우 정책과 각종 지원 및 교육 정보 등이 담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카드뉴스, 인스타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정기적 이벤트 진행으로 이용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SNS 참여를 확대해 왔다.

특히 주민 기자단과 전문 필진으로 구성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맛집, 각종 행사, 일상, 사람 등 완주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등 소통 및 공감 행정을 실천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은 블로그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채널 특성에 맞게 재가공하고 인스타툰을 제작하는 등 이미지 중심의 스토리를 강화, 채널 반응도를 높여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자율방범연합대 30년만에 법정단체로

자율방범연합대 출범식 가져

완주군 자율방범연합대가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완주군 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장 이완근)가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27일 완주군은 최근 자율방범연합대 출범식이 지난 24일 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이인영 완주경찰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완주군 자율방범대원 30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법정단체로의 출범을 축하하고, 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완주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993년 첫 활동을 시작한 후 30년 만인 올해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0년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출범식은 법정단체 출범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우수지대 및 우수대원 시상, 결의문 낭독,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완주군 자율방범연합대와 13개 지역대가 법정단체로 설립됐음을 공식화했다.

이완근 연합대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원해 주신 완주군와 법정단체 등록을 위해 노력해주신 완주경찰서에 감사드린다"며 "정식단체가 된 만큼 완주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 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범죄없는 완주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법정단체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든든한 '치안지킴이'로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사랑의 온도탑' 점화, 100도까지 달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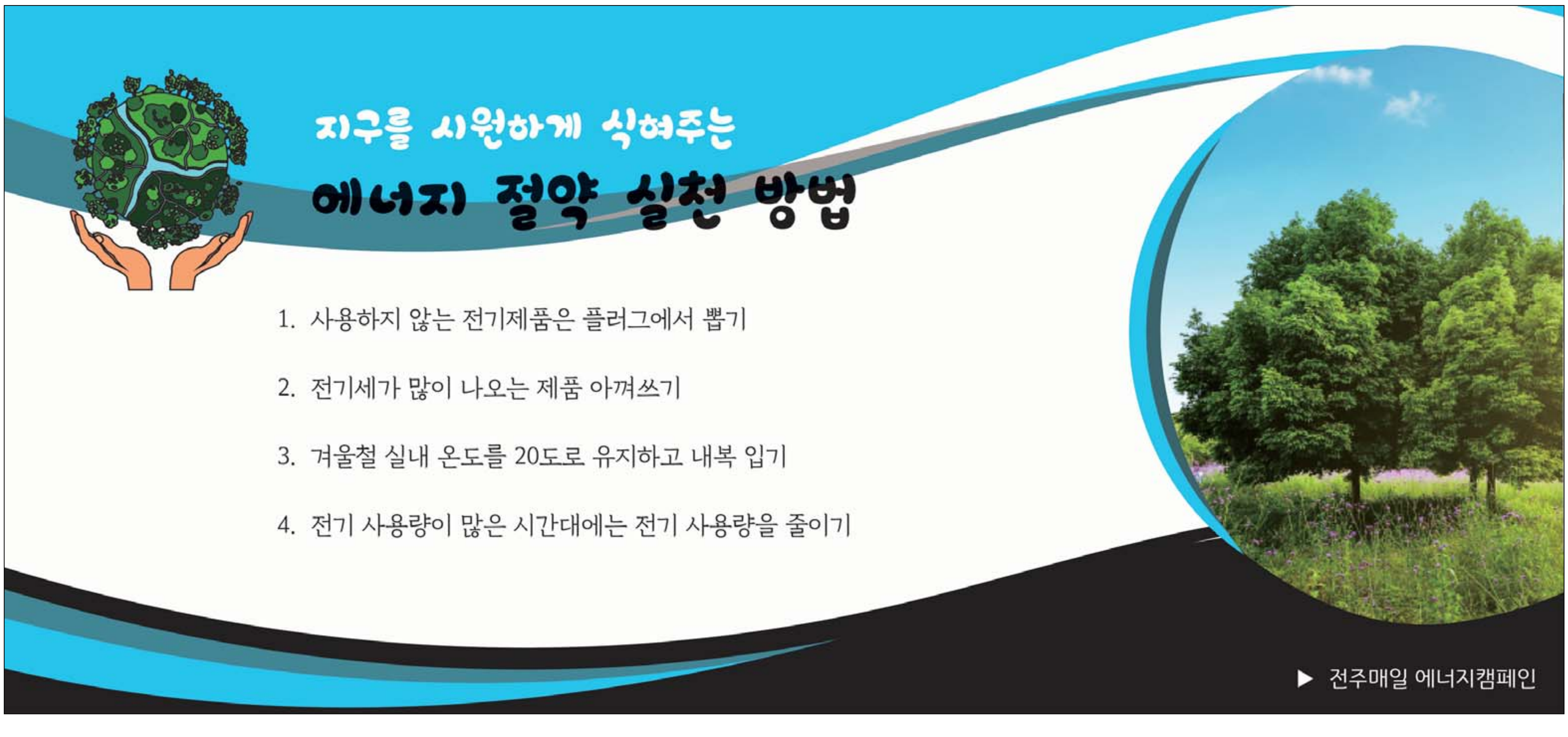
김제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시작 알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연말연시에 진행하고 있는 희망나눔 캠페인은 기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1999년 12월부터 희망찬 내년을 열어가는 의미로 '희망'이라는 글자에 다음 연도를 표기하는 '희망2000 이웃돕기 캠페인'으로 변경했다가, 2007년 12월에 현재와 같은 희망나눔 캠페인으로 정착 사용하게 됐다.

이는 이웃 돕기라는 온정적인 기부의 의미에서 '나눔'이라는 상호적인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해마다 희망나눔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왔는데 금년에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까 염려된다."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온도계가 100도 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희망나눔 성금은 12월 1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모금된 성금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